

협 회 소 식

■ 우유 위생관리세미나 개최 및 캠페인 전개

가.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 및 소비자보호 세미나 개최

하절기를 앞두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세미나를 4월 12일 무역회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연사에는 가축위생연구소 조태행 연구관, 국립보건원 염곤 진균과장, 한국부인회 박금순 회장 등 세 분의 연사들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이 급증하여 식생활개선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

고 있으나 우유 및 유제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위생적인 면에서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나.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캠페인 전개

83. 4. 14 (13:00~17:00시 4시간)에 걸쳐 회원사의 임직원이 지역별로 활동지역을 분담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전단을 배부하면서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냉장조에 넣어 판매하도록 제মон하고 회원사별로 유통경로(대리점-배달원-판매원)를 통해 전단을 배부하면서 4.19~21까지(3일간)에 걸쳐 연인원 5,500여명이 제蒙에 참가 하였다.

다. 전파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제 목	장 소	방 송 일 시	방 송 내 용	출 연
알뜰살림방송 (KBS 제 2 TV)	뉴 코 아 쇼 핑 센 타	83. 4. 28 (10분간) 18:50~19:00	유우 및 유제품의 선택과 보관요령	이 영 부 (상근부회장)
유업계현황에 관한 대담 (KBS 제 1 라디오)	방 송 공 사	83. 4. 27 (10분간) 15:40~15:50	낙농 및 유가공육성과 발 전을 위한 대담	"
KBS와 함께 (제 1 라의오)	방 송 공 사	83. 5. 9 (10분간) 15:40~15:50	유질향상과 유통개선	"

■ 낙농 및 유가공 육성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내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낙농 및 유가공업 육성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4월 29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낙농가를 비롯 유관업체 그리고 학계 및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윤래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경제의 대외지향적 성장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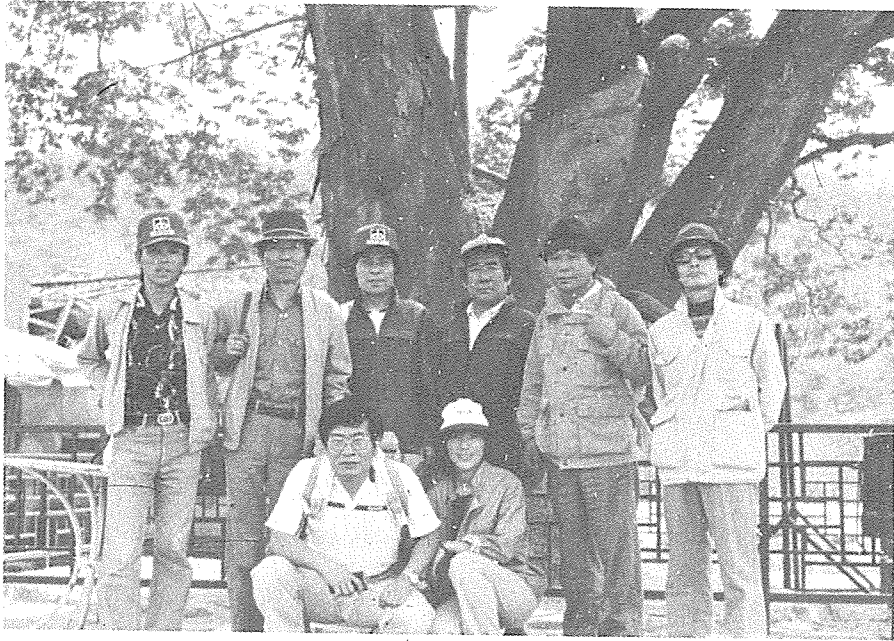
현행 수입자유화율 76.6%를 84년도 이내에 92%이상 제고시키고 88년도까지는 최고 관세율도 30%로 인하 한다는 일련의 수입자유화방안 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강력히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속 에서 낙농과 유가공업이 살아 나갈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전제하고 유제품이 수입 개방된다면 우리 낙농가는 하루아침에 도산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金顯旭교수(서울농대)는「외국과 우리나라의 낙농 및 유가공업에 대한 비교」를 주제로 宋基澈교수(고대경영대학)는「수입자유화정책의 허와 실」을 주제로 그리고 金東熙교수(단국대)는「수입개방정책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柳允洙조합장(서울우유

협동조합)은「유제품 수입자유화가 生産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가 각각 발표되었다.

■ 협회 체육단련대회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4일 체육단련 대회를 갖었다. 이날 대회에는 협회 상근 임직원(9명) 전원이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피해 등산로를 따라 관악산 삼막사(三幕寺)에서 하루를 지냈다.



■ 83년도 전지분유 수입

83년도 우유 수급조절용(1차분)으로 수입된 전지분유 500톤이 83. 5. 27일 부산항에 입항되어 6. 20부터 실수요업체에 인도되었음.

본협회는 이의 배정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금번 수입분 500톤을 식품용 20톤과 시유용 480톤으로 11개 실수요업체에 배정한바 있다.

살림위해 절약하고 건강위해 우유먹자
